[보도자료]

요이(Yo-E Ryou),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 초청...
설치작품 〈숨 오케스트라〉 선보여

‘26. 5. 5 (화)

- 코요 쿠오(Koyo Kouoh)가 기획하는 본전시 ‘단조로(In Minor Keys)’에 한국 여성 작가로 유일하게 참여
- 제주 해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호흡과 침묵의 리듬을 바탕으로 한 공감각적 다매체 설치 작업 공개
- ‘상황화된 앎’과 ‘언러닝(unlearning)’을 통해 감각이 전달되는 방식과 조건 제안

작가 요이(본명: 유용은)가 큐레이터 코요 쿠오(Koyo Kouoh)의 초청으로 오는 5월 9일(월) 개막하는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전(Biennale Arte 2026) 본전시에 참여한다.

전 세계 111명(팀)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본전시는 코요 쿠오와 그의 팀이 이끄는 ‘단조로(In Minor Keys)’라는 주제 아래, 동시대 예술이 지닌 지역적 실천과 제도 비판적 시선, 그리고 미래지향적 상상력을 조망한다. 요이는 제주에서의 삶과 작업을 바탕으로 구현한 다매체 설치작품 〈숨 오케스트라(Breath Orchestra)〉(2026)를 선보이며, 한국적 맥락에서 상황화된 앎(situated knowledge)을 국제 무대에 소개한다.

‘단음조(Minor Keys)’가 지닌 저항과 회복의 주파수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인 ‘단조로’는 낮은 주파수의 목소리와 조용한 저항, 그리고 급진적인 연대에 주목한다. 요이의 작업은 수면 아래, 숨을 참는 상태에서 감각되는 정적, 즉 발화되지 못한 침묵의 층위에 주파수를 맞추며 전시의 주제와 공명한다.

제주 해녀들과의 장기적인 관계 속에서, 요이는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긴장된 위치를 자각하며 작업해왔다. 이 작업은 특정 문화를 재현하거나 대표하려 하기보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각과 윤리적 거리감을 탐색하는 과정에 가깝다. 물 밖으로 올라오는 순간의 휘파람 같은 숨소리 ‘숨비소리’를 고정된 문화적 대상이 아니라, 지침과 회복 사이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경계로서 사유한다.

해녀들에게 숨쉬기는 결코 고립된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 해녀의 숨이란 삶과 죽음, 노동과 돌봄이 교차하는 바다의 시간 속에서 서로 다른 몸들이 함께 만들어 온 ‘침묵의 다성악(polyphony of silences)’이다. 작가는 이러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찾아가며, ‘멈춤’이 저항이자 생존의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깊은 경청을 위한 호흡의 구조: 〈숨 오케스트라〉

아르세날레(Arsenale) 전시장에 맞춰 구성된 〈숨 오케스트라〉는 사운드와 영상, 드로잉이 결합된 하나의 '호흡의 구조'로 기능한다.

9채널 몰입형 사운드는 관객을 층층이 쌓인 호흡의 리듬으로 감싸며, 수면 위아래를 오가는 시간의 감각과 리듬을 공간으로 불러온다. 이와 동기화된 두 점의 영상은 이러한 호흡의 리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따라간다. 〈Ellipses 0 — Practice〉는 지역의 소녀들이 상상하는 물 안팎에서의 호흡을 수행하는 장면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로지르는 감각의 전이를 비춘다. 반면 〈Ellipses I — Rest〉는 물 밖에서 이어지는 공동체적 시간을 따라가며, 노동의 틈새에서 서로에게 기대며 홀로, 또 함께 회복하는 몸들을 따라간다.

전시장 중앙에는 해녀들이 바닷가에서 바람을 피해 몸을 녹이고 시간을 나누던 '불턱'의 관계맺기 방식을 옮겨온 구조물이 자리한다. 관객은 이곳에 머물며 정적의 변주를 감각하는 '깊은 경청(deep listening)'의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

더불어 리서치 드로잉 연작 〈말하는 물, 쓰는 몸 Water Speaking, Body Writing, 4-6〉은 조류의 흐름과 물 속 지형, 숨 쉬기와 듣기의 순환적 리듬 등이 공간 전체에 또 다른 층위를 형성하고, 물의 언어를 찾아간다.

지역 기반 실천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국제적 시도

이번 전시는 제주 해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며든 신체적·감각적 지식을 서로 다른 맥락들과 마주 놓으며 한국 동시대 미술이 만들어내는 지역 기반 지식이 어떻게 번역되고 전달될 수 있는지를 새롭게 조명한다. 이 작업은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를 설명하거나 재현하기보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몸들이 어떻게 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실험이다.

베니스에서의 물리적 작품은 요이가 운영하는 연구 플랫폼인 '언러닝 스페이스 라디오(Unlearning Space Radio)'를 통해 디지털로 확장된다. 24시간 송출되는 사운드 스트림 〈Sonic Letters - Island to Island (섬에서 섬으로)〉는 제주를 비롯해 섬과 섬, 그리고 경계 위의 장소들을 연결하며 하이드로페미니즘(hydrofeminism)적 연대를 제안한다. 다음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radio.unlearningspace.com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삼성문화재단, 타이거 재단(Teiger Foundation)과 아메리칸 프렌즈 오브 자이츠 모카(American Friends of Zeitz MOCAA)와의 파트너십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작가 소개

요이(Yo-E Ryou, 1987)는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설치, 드로잉을 아우르는 작업을 통해 제주를 거점으로 다학제적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물과 몸의 감각, 그리고 체화된 지식과 생태적 기억이 어떻게 순환되고 변형되는지를 따라가며, 특히 하이드로페미니즘적 사유에 기반하여 몸과 환경의 기억을 이어주는 매개로서 물에 주목한다. 예술 연구 플랫폼 '언러닝스페이스'를 운영하며 바다 건너 다른 장소들과 연결을 도모한다.

문의처

스튜디오 요이 (Studio Yo-E Ryou)
이메일: studio@yoeryou.com
홈페이지: www.yoeryou.com
프레스 키트(이미지 및 CV 포함): yoeryou.com/press

※ 설치 이미지 제공
5월 5일에서 6일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프레스 오피스(foreignpress@labiennale.org)를 통해 설치 이미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5월 7일 이후부터 위 프레스 키트 링크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